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인사·조직개편 금주 마무리

5명 규모 운영될 듯…김건희 특검법 시선 돌리기 해석엔 선 그어

정책실로 옮겨갔던 비서관실, 비서실장 산하로 '원위치'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제2부속실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인사를 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총선 출마자 공직 사퇴 시한인 오는 11일에 앞서 일부 비서관급 교체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측근으로, 각각 부산 수영과 서울 출마가 유력한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 후임을 채우는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내정돼 업무 인수인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하순 대통령실 '3실장' 개편 당시 정책실 산하로 옮겨갔던 일부 비서관실도 비서실장 산하로 다시 '원위치'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컨트럴타워인 국가안보실도 장호진 안보실장 부임 등을 계기로 막바지 조직 정비 중이다.

안보실에 신설되는 경제안보 담당 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사무차장을 겸하는 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에는 강재권 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현 임상범 안보전략비서관은 외교부로 복귀해 주요국 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도 기정사실로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부터 제2부속비서관 후보군 물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대선 당시 약속을 변경하게 된 만큼 국민에게 그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 일"이라며 실제로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지난 5일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조건부' 검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선 당시 제2부속실 폐지를 공약했고 취임 후 이를 이행했던 윤 대통령은 제2부속실 부활에 최근까지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참모진 설득 속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러한 배경에 대해 "윤 대통령이 야당뿐 아니라 언론과 여론 등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 제2부속실 설치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다만 일각에서 제2부속실 부활을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대안'으로 해석하는 데는 "제2부속실 설치는 기본적으로 특검과 관련이 없다"며 강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다.

원래 청와대에 있던 조직인 만큼, 되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팀'을 토대로 5명 남짓한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제2부속실 설치와는 별도로, 김 여사는 정상외교 일정 등을 제외하고는 당분간 공개 일정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서 귀국한 뒤 공개 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호남에 무릎 꿇은 이낙연 7일 오전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들에 무릎을 꿇고 참배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찾은 이낙연 "인사하고 용서 구할 것"…이번주 탈당 예고

지역민 "야권 분열, DJ정신 어긋나"

5·18묘지 참배하며 눈물

'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7일 광주에서 이번 주 중 탈당 선언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광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탈당 등 거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지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양당 독재 정치 구도에 절망한 국민들이 마음 둘 곳 없어한다. 이런 국민들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선택지를 드려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도움"이라며 "희망을 만드는 첫 걸음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이번 주 말께 탈당을 행동으로 옮기고 신당 창당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역민과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당 창당의 의지를 굽히지 않는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이며, 말못할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신당과의 합당에 대해서는 "양당 독점 구도를 깨고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의 선택지를 드리는 일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협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낙석연대'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 조어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 받아들이기 싫다"며 "지금은 그 논의를 먼저 꺼낼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합류 의사를 밝힌 현역 국회의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차츰 드러날 것"이라고 밝힌 이 전 대표는 호남 현역에 관해 묻자 "정치인의 거취는 남이 말해서는 안 된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저를 낳고 키워준 광주·전남에 진 빚을 아직 갚지 못한 것이 많다"며 "제게 힘이 남아있다면 모든 것을 쏟아서라도 그 빚을 다 갚고 떠나겠다는 다짐을 다시 했다"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한동훈 새해 일주일 전국 돌며 정치무대 데뷔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첫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며 정치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총선 지휘봉을 잡은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중원 표심'을 상징하는 대전을 시작으로 '보수의 심장' 대구, '여당의 불모지' 광주, 총선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외연 확장과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당내에서는 그의 첫 정치 행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대구 방문에서는 "TK(대구·경북)는 우리의 기둥"이라며 먼저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선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적극 찬성 의사를 밝히며 호남 민심에 손을 내밀었고, 5·18 왜곡 논란을 빚은 당 소속 시의원을 즉각 윤리위원회에 회부했다.

총선 전 집토끼를 먼저 단속한 다음 산토끼를 잡으러 나선다는 정치권의 오랜 공식을 따른 셈이다.

한 위원장은 전국 순회 기간 '격차 해소'라는 총선 정책 이슈도 내놓았다.

이는 안보와 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기존 보수 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총선 밑그림 그리기뿐 아니라 돌발 현안에도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에는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곧바로 당 진용 개편에 착수, 지난주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을 발표하기까지 각종 인선 작업도 '신속과 보안'이라는 원칙하에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당을 빠르게 장악하고, 여론의 주목도를 높이는 데도 성공했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대체적 평가다. /연합뉴스

신당 창당 지지율…이준석 10%·이낙연 6%

각종 여론조사 3~4% 차이

여·야 진영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신당의 영향력이 이낙연 신당보다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준석 신당의 지지율이 이낙연 신당보다 3~4%포인트 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1~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6%로, 이준석 신당 10%에 크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는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해 12월 30일~올해 1월1일(전국 성인 남녀 2004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포인트·무선전화 RDD 100% ARS방식·응답률 3.1%·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신당들이 총선에 참여하게 된다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설문에 민주당 38.3%, 국민의힘 33.4%, 이준석 신당 9.5%, 이낙연 신당 6.4%, 정의당 연합 2.0%, 없음·잘 모름 6.7%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여론조사 전문업체 케이스탯리서치가 TV조선·조선일보 의뢰로 지난해 12월 30~31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표본오차95% 신뢰수준±3.1%p)에 따르면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25%, 이준석 신당 7%, 이낙연 신당은 4%로 나타났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광산구

광산구민상 수상

첨단우리병원은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화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정형외과 중점 병원

든든한 척추 /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 공원 앞 위치!